

광주 동구 외곽 개발에 구도심 쇠락

선교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도 인구는 오히려 감소

“광주 역사·유산 중심 주민 삶의 질 높여야 활력 되찾을 것”

광주 구도심 주거지역의 쇠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 내 외곽지역의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구는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계획을 잇따라 승인해주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정책의 목표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30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월남지구(1438세대), 내남지구(1027세대), 용산지구(2218세대)에 이어 선교지구(1328세대)의 도시개발사업자를 최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06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선교지구는 이후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여간 5차례에 걸쳐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찰됐다. 그러나 인근 월남지구에서 이어 내남지구 조성돼 광주와 화순의 경계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사업자가 나타났다.

선교지구(11만7772㎡)에는 총사업비 741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상반기 입주 목표로 1328세대, 3500여명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도 들어선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인근의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는 가속되고, 동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도 줄어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남지구와 함께 재개발한 학동 3구역(1410세대)의 입주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동구의 골칫거리다. 모두 2848세대가 공급돼 최소 5000여명이 입주했지만, 기대했던 인구 증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구의 인구는 지난 2013년 말 10만3016명에서 2015년 말 9만8784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2017년 말에는 9만5448명으로 9만명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동구 내 신규 아파트에 동구민이 이사한 사례, 타 자치구에서 이사했거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인해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주민에 대한 주거 수요조사 ▲원주민 입주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기반·편의시설의 정비 및 추가 공급 등 동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구도심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 동구가 그나마 남아있는 녹지 인근에 개발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는 과거의 활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광주의 역사이자 중심이었던 과거 유산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현재 거주민이 떠나지 않고 타지역에서 주민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선거 피켓·홍보물 6·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30일 오전 광주 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번 선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피켓과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전당대회 정상 개최 불투명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전 의결을 위한 국민의당 2·4 임시 전당대회가 이종당적 대표의원 문제와 당비 대납 의혹 등으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또 통합 반대 진영이 범원에 의뢰한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 김종로 전대준비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8일 발표된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1차 명부 2400여명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 당 대표당원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저히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는 2월1일 예정된 민주평화당 시도당창당대회 발기인 명부에는 더 많은 대표당원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을 분류해 내지 않은 채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종당적 대표당원·당비 대납 논란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도 곧 나올 듯

현재까지 집계된 국민의당 대표당원은 6450명으로, 만약 안 대표 측이 정계를 통한 중복당원 정리에 나설 경우 추가 정리 규모는 1000여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전준위는 이와 함께 대표당원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복의 한 농협 지점에서 40분 동안 46명의 대표당원 당비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무더기 입금되는 조직적 대납 의혹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찬성 진영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당헌을 변경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당 당헌은 당의 해산, 합당 의결을 전당대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헌의 제·개정과 당의 해산·합당은 중앙위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는 일단 31일 전당대회 대책 논의를 안전으로 당무위를 소집, 통합 의결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당 내외에서는 범원에 의뢰한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6기 원우 모집

호남 리더에서 글로벌 리더로

1·2·3·4·5기 주요 강사



최진석

이홍렬

박정자

박재동

손미나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6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

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인원 : 00명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교육 기간 : 2018년 3월~2018년 11월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호텔식사 제공)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법 3건 법사위 통과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방염처리업자 능력 국가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 3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가로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월 2일 OPEN[예정]



신대배후단지 프리미엄의 완성!
중흥S-클래스를 소유할 마지막 기회!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B-1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 상기 투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색채 및 외부 상세 등은 입주가, 색채상의 범주의 변경 등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계획된 근린공공시설은 현재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천이 꿈꾸며 부러워하던 신대배후단지 B-1블록의 마지막 기회!

B-1블록 전용 84㎡A·B / 101㎡ / 110㎡ | 총 493세대
주택전시관 | 전남 순천시 동덕동 303-1번지

세종 중흥에스클래스 세종 중흥토건

분양문의 061) 727-1000